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삶의 치유로써 Map Drawing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김 영 주

# 삶의 치유로써 Map Drawing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김 영 주

# 인 준 서

김영주의 석사 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9년 9월에 전시한 본인의 석사학위 청구전시 ‘MAP DRAWING’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측면을 고찰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우리는 사회 규범에 따른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삶의 모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길은 다르다. 본인은 주어진 사회 규범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긴장감이 흐르는 삶의 끈을 붙잡고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시 끈을 놓고선 떼내려가며 자유롭게 헤엄치기도 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걱정 속에서 부유하는 본인을 마주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에 잠재된 ‘심상 이미지’를 자동 기술적 방식으로 드로잉(Drawing)하여 드러낸다. 이 이미지들은 본인 ‘마음의 지도’처럼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화면 위에 부유한다. 이 화면 위의 이미지는 강약의 조절을 거치면서 심리적 불안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치유 효과’와 내면의 감정조절과 균형점을 찾게 한다.

본인은 내면에 축적된 감정들과 혼재된 시 공간 속 기억의 이미지들을 구체적 이미지와 함께 순수 조형 요소인 선과 면 그리고 색을 병치하여 드로잉으로 드러낸다. 이 드로잉을 본인은 ‘맵 드로잉(Map Drawing)’이라 칭한다. 본인은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표현 방식 드로잉과 판화, 디지털(Digital)과 콜라주(Collage)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혼용하여 ‘새로운 표현성’을 모색하고 있다.

본인은 MAP DRAWING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업 과정을 되짚어 보고, 작품에 내재한 내용과 조형적 관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표현성의 확장을 모색하며, 치유로서의 드로잉(Drawing)과 자아 성찰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의 배경 .....	3
2. 작품 속 내용 연구 .....	6
1) 삶 속에서 느끼는 혼란 .....	6
2) 혼란 속 편안함 .....	8
3) 내면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맵 드로잉 .....	14
3. 작품 속 조형적 측면 .....	20
1) 드로잉을 통한 감정표현 .....	20
2) 관화기법을 통한 맵 드로잉 .....	24
III. 결론 .....	30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록

- [작품1] The Table, 78x109cm, Digital print, 2018
- [작품2] Map Drawing#1, 70x100, Mixed media on paper, 2019
- [작품3] 드로잉#03, 22.7x15.8, Mixed media on paper, 2019
- [작품4] 드로잉#01, 22.7x15.8, Mixed media on paper, 2019
- [작품5] Map Drawing#22, 70x160, Mixed media on canvas, 2019
- [작품6] Map Drawing#3, 30.6x37.7, Mixed media on canvas, 2019
- [작품7] Island Drawing, 60.6x72.7, Mixed media on paper, 2019
- [작품8] Map Drawing#5, 60.6x72.7, Mixed media on canvas, 2019
- [작품9] Map Drawing#8, 29x42, Wood cut on Digital print, 2019
- [작품10] Map Drawing#12 ,60.6x72.7, Mixed media on paper, 2019
- [작품11] Map Drawing#9, 29x42, Mixed media on Digital print, 2019

## 참 고 도 판 목 차

[도판1] 베를린 전봇대에 떨어진 포스터 사진

[도판2] 박이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어떤 것, Something for Nothing,  
콘크리트, 고무용기, 젯소, 나무, 120x75x400cm, 1998

## I. 서 론

우리는 사회적 합의와 질서의 틀 안에서 허용 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탠다드(standard) 한 삶의 모형, 우리는 그 속에서 때때로 답답해하면서 벗어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예측되지 않는 삶 속에서 본능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 본인만의 삶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는 흩어지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어지러운 내면의 심상을 들여다보면서 삶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해매기도 하면서 삶의 균형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만의 질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과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었던 느낌과 감성을 이미지화(Imaging)하여 드로잉 한다. 이는 마치 지도를 제작하듯이 이미지를 화면에 펼쳐 놓고 불필요한 이미지는 약화시키고 특정 이미지(Image)는 부각하거나 강화시키는 작업을 거듭하며 안정된 조형적 표현과정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를 본인은 ‘맵 드로잉(Map Drawing)’이라 칭한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삶의 혼란에서 삶의 질서를 찾기 위한 ‘치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맵 드로잉’은 삶 속에 내재된 생각과 감성이 그대로 담긴 ‘마음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속에는 구체적인 형상 이미지와, 감정이 내재된 색 면이나 선적 표현, 그리고 인쇄물에서 가져온 콜라주 이미지 등 다양한 조형적 표현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공존한다. 이는 본인의 혼돈된 심리 상태로서 그 속에서 본인은 삭제와 약화 그리고 가필

(加筆)과 강조 등의 조형 행위를 거치면서 삶의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 구축해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본인의 작품 맵 드로잉(Map Drawing, 2018-)에 담겨 있는 내용과 조형적 관점을 분석한 논문이다. 본인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본론 2장 1절에서는 ‘맵 드로잉’ 작품을 하게 된 심리적 배경에 관해 서술하고, 2절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현재의 삶 속에서 갖는 혼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혼란 때문에 내면의 안정을 갖기 위해 드로잉 작업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혼란하고 산만한 공간에서 갖는 편안함과 시간의 축적이 그대로 드러나 사물에서 갖는 자연스러운 친근함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내면의 불안감을 드로잉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업 이미지와 함께 보여준다.

마지막 3장에서는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조형적인 측면에 관해 서술한다. 이에 먼저 본인의 내면에 축적된 감정들을 구체적 이미지와 선과 면 그리고 색을 주 조형요소로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드로잉과 판화 표현형식, 그리고 디지털과 콜라주 이미지 등을 한 화면에 혼용하여 ‘새로운 표현성’을 모색한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맵 드로잉’은 본인 ‘마음의 지도’로서 무의식속에 내재된 심상 이미지로서 본인의 내적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본인만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표현행위이다. ‘맵 드로잉’을 통해 ‘치유로서의 드로잉’과, 자아 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의 배경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본인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에,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한다”고 교육 받았다.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믿고 그대로 따르기며 행동으로 실천하기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과 정신적, 물질적 유혹으로부터 삶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방법에 대해 자문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을 풀어가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본인에게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드로잉 하는 것이다. 이는, 본인에게 혼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의 이미지를 생각나는 대로 드로잉하여 드러내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특정 이미지는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거나 삭제하면서 내면의 혼돈을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의 내적 혼돈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음의 지도’이다. 본인은 이 ‘마음의 지도’를 ‘맵 드로잉(Map Drawing)’ 이라 칭한다. 본인은 맵 드로잉 작업을 통해 내부와 외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 하며, 내면의 욕구가 갖고 있는 실체적 모습을 모색한다.

현대 정보사회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쏟아지는 정보들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또한, 심리적

으로 긴장감과 스트레스(Stress)에 시달리며, 삶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는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인 역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교육적 삶의 가치관’과 ‘내면에 내재된 욕구’와의 갈등구조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려 한다. 그래서 본인은 내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여 손이 가는대로 무의식적으로 드로잉을 하여 본인의 마음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고자한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바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를 들여다 보고 나름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 랭크(Otto Rank, 오토랭크, 1884-1939)<sup>1)</sup>는 창조적 욕구가 생의 불안에서 온다고 주장하였고,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불안을 통해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정리한다고 하였다. 본인의 작업 또한 삶의 고민들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상태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마음조차 나를 힘들게 한다.*

*요동이 없는 것은 없다.*

*모두 미세한 떨림을 가진 채 살아간다.*

*그렇게 떠나려간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어떠한 삶의 방향을 다짐했던 간에 움직여야 한다.*

*- 작가 노트 발췌 -*

---

1) 오토 랭크(Otto Rank, 오토랭크, 1884-1939)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로서 당초 프로이트로부터 정신분석학을 배웠다. 후에 출산에 따르는 분리현상을 중시한 출산외상학설을 세우고 스스로의 방법을 의지요법이라 칭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평화를 말하기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우주에 대해 말하기엔 작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복잡한 문제이고, 반복적으로 삶은 지속되며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니 힘을 빼고 흐름에 마음을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늘 자기 삶의 한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삶의 방향이 맞는 건지 수백 번, 수만 번 스스로에게 물으며 살아간다. 어쩌면 평생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끝없이 던지며 답을 찾는다.

## 2. 작품 속 내용 연구

### 1) 삶 속에서 느끼는 혼란

본인은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규범으로서 질서와 규칙들이 가끔은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사회질서와 규칙들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올 바르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회가 지정한 질서와 체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본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나?’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느낀다. 사회가 다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규범화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통념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마치 아웃사이드(Outsider)로 치부되기도 한다.

본인은 삶의 중요한 선택과 행동을 할 때마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본인 스스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된다. 이는 인생에서 스치는 수많은 혈연과 만남의 인연이 본인의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만의 질서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 것인지, 남들처럼 적절한 시기에 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가정을 꾸리며 사는 ‘보통’의 삶이 진정 본인이 살아야 하는 삶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이 모여 삶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지금의 본인이 가고 있는 삶은 진정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안정한 감정들에 대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삶의 해답을 지금 당장 알 수 없고, 삶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염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모든 것의 균형점을 찾아서 마음이라도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면의 불안, 고독, 분노, 우울

등의 감정으로 심리상태가 불안할 때, 무의식적 드로잉을 통하여 지도 위에 각각 섬처럼 자동 기술적 표현처럼 드러내기도 하였고,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드러내었다. 이후 차분한 마음으로 드로잉을 바라보면서 삶의 가치를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맵 드로잉은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섬과 같은 드로잉들로 이루어진 ‘지도화된 풍경’은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면의 감정조절과 균형점을 나타내면서, 외부에서 주는 혼란과 내적 욕구의 공존을 통해 어지러움 속에서의 질서와 균형을 찾게 한다. 본인은 맵 드로잉을 하면서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평온하고 고요한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치유의 느낌이 들게 한다. 그리고 어지러움과 갈등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 2) 혼란 속 편안함

대부분의 사람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 본인은 어지럽고, 정렬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 자연스러움 과 편안함을 느낀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면 오히려 다시 어질러지는 것이 아쉬워서 쉽게 하려던 일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정렬된 것을 싫어한다. 마트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있는 물건들을 보면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며, 형식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평소에 입는 옷도 자고 일어난 듯하고 구겨짐이 있는 것, 새것이 아닌 때 탄 운동화, 거리의 그래피티(Graffiti)와 지저분한 스티커(Sticker)들 통해 시간의 축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동시에 묘한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본인은 각 잡힌 옷, 깨끗하게 정렬된 사물들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정리되지 않은 책상, 방, 부엌, 작업실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

본인의 작업 중 “The table”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던 본인의 식탁을 며칠간 촬영하여 포토샵(Photoshop)으로 비례를 조정하여 화면을 구성했다. 식탁 위의 물체들은 인위적으로 포토샵 작업을 한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크기는 실제 비례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상황이 아닌 인공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비례 조정으로 인해 생긴 틈새들을 그대로 두어 미완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비례와 균형에 의한 조화의 아름다움에 관한 생각을 실험하기 위함이다. 즉, 인위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미에 대한 척도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식탁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어떤 상황이었을지 이야기를 생각하게끔 하였다.



[작품1] Youngjoo Kim, The Table, 78x109cm, Digital print, 2018

“The table”작업은 ‘맵 드로잉’ 작업을 구상하는데 시초가 된 이미지(Image)이다. 어질러진 물체들이 식탁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조화란 무엇일까? 미는 조화와 비례에 있는 것인가.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sup>2)</sup>(Edmund Burke, 1729 - 1797)가 불완전한 미에 관해서 얘기했다. “비례라는 관념과 반대로, 미라는 관념은 측정에 속하는 관념이 아니기에, 계산할 수 없고, 미는 비례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을 즐겁게 하는 조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미’란 개인의 판단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정서적 안정감, 억지로 무엇인가 꾸미지 않은 상태 그대로가 가장 뛰어난 조형적 아름다움이다.

2)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영국 정치인이자 철학자, 연설가



[도판1] 베를린 전봇대에 떨어진 포스터 사진

[도판1] 처럼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에 누군가가 포스터를 붙이고,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덧붙여서 바람과 사람의 손에 의해 찢기고 찢겨 거칠거칠하며 지저분해졌지만, 우연히 생성된 장면이 재미있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본인은 ‘맵 드로잉’ 표현 방식은 일정한 형식으로서의 틀 안에 가두지 않고 때로는 자동 기술적으로 또는 순간적 판단에 따라 이미지를 화면 빈 곳에 툭툭 던지듯이 형성해 나간다. 이는 다소 산만함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비움과 채움의 이미지 구성이 인위적이지 않아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화면 구성이 이루어진다. 다소 산만하게 드러나는 1차 드로잉 이후 이미지의 강약 조절을 통해 화면에 공간감과 함께 리듬감을 형성하여 본인의 내적 이야기들은 점차 균형과 절제를 갖추게 된다. 즉, 혼란 속에 편안함을 느끼는 불완전한 감정에 대해 심리적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2018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박이소<sup>3)</sup>(1975-2004) 개인전 <박이소 : 기록과 기억>을 관람하였다. 당시 전시는 박이소 작가의 20년간 작성한 작가 노트를 포함하여 드로잉, 교육자료, 전시자료, 기사들 심지어 작가가 녹음한 음악까지 작가의 모든 연대기가 전시된 전시였다. 박이소 작가의 작가 노트를 보다가, 본인에게 있던 고민을 해결한 문구를 읽게 되어, 본인 작업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구절이 있었다.

뒤죽박죽인 느낌, 애증의 양면성 주저함이나 일관성 없는 것  
모두 인간의 참모습과도 같다.  
진실이나 세상을 바꾸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  
힘없음, 예상할 수 없음, 행방불명, 목적 없음에 흥미가 있다.  
작업은 삶의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 치료적 탈주 수단 인  
것이다.

- 박이소 작가 노트 발췌 -

---

3) 박이소(1975-2004) 대한민국 부산 출신의 현대 미술 작가.

미술은 ‘현실 변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삶의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치료적 탈주 수단”으로서의 면모를 주장한 작가의 말에 공감 할 수 있었다. 본인도 작업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복잡한 머릿속을 화면 위에 토해내면서, 내면을 치유 받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박이소 작가 노트에서 ‘자기 치료적 탈주 수단’이다 라는 말은 본인의 드로잉 행위가 갖는 의미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도판2] 박이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어떤 것, Something for Nothing, 콘크리트, 고무용기, 젓소, 나무, 120x75x400cm, 1998

이 작품은 박이소 작가가 추구했던 ‘어떤 것’, 즉 작품을 만들려는 행위와 욕구, 그리고 그 공허함에 대한 고찰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박이소 작가의 작

업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어떤 것’은 유실되었기 때문에 전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아카이브(Archive) 자료들 속에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삶에서 영위하고 있고, 연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애걸복걸 매달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쁨만큼, 셀 수 없는 절망들과 불안들로 뒤섞여 있다. 어쩌면 다 무의미한 것이 삶의 본질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거대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살아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온 몸으로 부정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은 ‘아무것도 아님’을 부정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이고, 흩어져있으며, 어지러운 것들에서 끊임없이 ‘삶의 가치 있는 모습’을 찾는 것이다.<sup>4)</sup>

---

4) 박이소, 『기억과 기록』, 국립현대미술관(2019)

### 3) 내면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맵 드로잉

본인이 그려낸 화면 속에 섬처럼 떠다니는 이미지들은 겹치고, 강조되고, 생략되기도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 내면의 상태를 대변해준다.

맵 드로잉 작품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본인이 가진 삶의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에서 느끼는 삶의 허무함, 불안감 등 본인이 풀어헤쳐 놓고선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감정들을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어지럽혀진 마음과 사용하는 공간의 정리 정돈을 잘하지 못하는 본인이 도망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서 수영하며 즐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치유의 감정을 느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일 수도 본인의 내면의 성장 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땐 오히려 시끄러운 음악을 듣기도 하며, 내면이 힘들 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분산시키며 회피한다. 애매한 대로 부족한 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모든 것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완벽한 형태일 필요가 있는가? 감정과 생각이 한군데로 몰리는 것은 힘들다,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관심과 집중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모든 감정을 화면에 풀어헤쳐 두었다. 이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며 본인이 만들어낸 내면의 섬이다. 본인은 그곳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본인의 선택은 내면의 섬에서 갇히기보다는 부유하며 흘러가는 것이다. 본인은 그 파편들 속에서 수영하고자 한다.



[작품2] Youngjoo Kim, Map Drawing#1, 70x100, Mixed media on paper, 2019

MAP DRAWING 작업은 평소에 일기를 쓰듯이 종이 위에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여 매일 드로잉 한 소재를 한 화면에 띄운 것이다. 각각 다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감정으로 드로잉(Drawing)하였고, 판화지라는 넓은 바다 위에 면과 선, 색과 농담으로 이루어진 드로잉 이미지 들은 하나의 점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도를 형성한다.



[작품3] Youngjoo Kim, 드로잉#03, 22.7x15.8, Mixed media on paper, 2019

[작품4] Youngjoo Kim, 드로잉#01, 22.7x15.8, Mixed media on paper, 2019

도표 안에 있는 이미지들은 Map Drawing#1을 구성하는 드로잉들 중 일부분이다.

칼 구스타프 융<sup>5)6)</sup>(Carl Gustav Jung, 1875 - 1961)의 분석 심리학에서 ‘영혼의 지도’라는 말을 사용한다. 자신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 내면을 여행해야 하고, 영혼의 지도는 내면의 탐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여러 층으로 나누었다. 의식에 해당하는 자아, 개인의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 있으며, 마음의 한가운데에 ‘자기’가 있다고 한다. 의식은 자각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며,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고 한다. 의식은 본인이 기억, 경험하여 외부세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본인의 생각과 이념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하였다. 그는 의식을 작은 섬에 비유하며, 무의식은 바다에 비유하기도 한다. 무의식과 자아는 영향을 받지만, 철저히 분리된다. 개인의 무의식은 내면 깊숙하게 존재하여, 잊고 있던 상처나 뒤튼린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에서 생겨나는 무의식과 다르게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생긴 영적 유산이라고 한다. 사람의 본능에 영향을 주는 것, 배우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나 반사적인 행동 같은 것을 얘기한다.

융(Jung)은 미술은 인간이 가지는 무의식의 세계와 내면세계를 시각적으로 표출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억제된 감정과 사고를 표출하여 치료 효과를 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페르소나(Persona)’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 페르소나는 상황에 맞춰 쓰는 인간의 가면과도 같은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상황에 맞는 본인의 얼굴이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 가짜는 아니다, 타인과 건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며, 외부세계와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어떤 얼굴이든지 본인 내면에 존재하는 본인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도 지도를 지키며 관리하는 본인의 페르소나가 등장한다.

5)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1875 - 1961)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6) Jaffé(Hrsg.), C. G. Jung, 『Erinnerungen - Träume - Gedanken』, Olten, 1971, s.178/  
Ingrid Riedel 지음·정여주 옮김,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학지사, 2000, 인용.



[작품5] Youngjoo Kim, Map Drawing#22, 70x160, Mixed media on canvas, 2019

오른쪽에 털복숭이 먼지 덩어리는 본인의 페르소나(Persona)이다. 지도를 지켜보며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주인이며, 내면의 섬 안에 모든 곳을 돌아다닌다. 자유롭게 흘러 다니는 ‘자신’인 것이다. 떠도는 물체들은 하나의 섬을 이루기도 하고 부스러기처럼 그저 떠다니기도 한다, 본인의 무의식 세계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MAP DRAWING” 작업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존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이상향이기도 하며, 일기장을 펼친 듯한 내면적인 고민과 갈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미지들이 섞이고 엉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한다. 혼란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면세계의 욕망을 드로잉이라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내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예술의 치유적 의미를 심리학적 근거로 분석한 용<sup>7)</sup>은 자신의 꿈과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얻어지는 ‘적극적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

7) 미술치료, 캐시a.말키오디, 최재영, 김진연 옮김, 조형교육,2008,p20

고 마음이 불안할 때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여 자신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그려냄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그리기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치유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본인이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들과 개인적 욕망, 불안감 등의 정서를 드로잉과 판화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표출하며 치유를 받는다. 본인의 내부세계는 외부와 끊임없이 교감을 하며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삶은 혼돈 그 자체 같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규율 속에서 질서를 잡고 살기 위해 노력한다.



[작품6] Youngjoo Kim, Map Drawing#3, 30.6x37..7, Mixed media on canvas, 2019

### 3. 작품 속 조형적 측면

#### 1) 감정 표현으로서의 드로잉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물과 풍경은 내면의 욕망과 불안한 심리가 투영되어 상상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사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모순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을 재구성하여 균형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불균형과 불안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균형과 중심을 잡아가려는 본인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드로잉은 동일 시간에 하나의 화면에 드로잉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작품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갖게 되는 상황에 따라 심상의 이미지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 속에 형성된 드로잉 이미지들은 각자의 해석과 이미지들이 충돌하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본인은 축적된 감정들을 선과 면 그리고 색을 주 조형 요소로 병치하거나 배치해 잠재된 공간속 기억의 이미지들을 구현한다. 이처럼, 본인은 관찰력과 감수성으로 이미지를 기억하고, 이를 평면 표현방식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고 본인의 마음에 담은 이미지를 조합, 해체, 변형하여 작품을 이루어 간다. 때로는 기존의 그려진 이미지의 형태를 해체한 후 이를 재배치하여 시간의 연속성과 공간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작품7] Youngjoo Kim, Island Drawing, 60.6x72.7, Mixed media on paper, 2019

삶은 인간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신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무의식적인 걱정과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 이 불안감은 본인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과 면들이 함께 어우러져 드러난다. 이는 본인의 평소 감정들을 화면 위에 끄집어낸 것들이며, 그 파편들을 재조합하여 생각들을 연결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인 이미지는 다시 본인의 감성을 통해 형태와 구조, 색으로 분류되어 다시 새로운 하나의 화면을 형성하게 된다. 표면 위에 자리 잡게 되는 형태와 색은 본인의 생각 속에서 화면 위에 드러날 때까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여러 경로와 감각,

감정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화면 속의 각각의 형상들에서 출처의 원인이나 의도, 이유를 찾기보다 완료된 화면이 주는 시각적인 뉘앙스 (Nuance) 자체와 본인이 순간적으로 감각으로 느끼고 기억하는 것을 정리하며 재구성한 화면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작품8] Youngjoo Kim, Map Drawing#5, 60.6x72.7, Mixed media on canvas, 2019

드로잉은 즉흥적이며 순간적인 감성표출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이다. 드로잉이라는 조형행위 속에는 진솔한 감정의 표출이 내재하여있다. 선의 강약, 속도 그리고 방향성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며 자유분방한 곡선이나 명료한 직선을 통해 감정을 시각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기에, 이로부터 내면의 갈등을 순화하고 치유하기도 한다. 재료는 주로 색연필과 수채화 아크릴(Acrylic) 물감을 사용하였고, 스텐실(Stencil)과 실크스크린(Silk Screen) 방식도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감정을 강약으로 표현한 선 드로잉들과 판화기법을 혼재하여 드러내어 무거움과 가벼움의 대비에서 야기 되는 긴장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2) 판화기법을 통한 맵 드로잉

맵 드로잉은 색연필, 오일 파스텔(Oil pastel), 아크릴 스프레이(Acrylic spray), 아크릴 물감 등의 건성재료와 물감 그리고 판화기법 중 모노타입(Monotype), 리놀륨(Linoleum), 목판, 실크스크린 등의 표현방식이 혼재하여 드러난다. 이를 통해 직접적 표현과 간접적 표현에서 야기되는 물성들이 서로 대치되고 조합하여 다양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조형적 효과에 주목한다. 판화의 제작 과정에서 재료의 물성이 이미지가 되는 과정은 판재를 깎거나 새김으로써 표면을 가공하고, 압력을 주어 물성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을 종이 위에 옮긴다. 회화에서 이미지는 손의 힘으로 색연필이나 물감 등의 물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즉, 본인의 작품에서 종이 위에 물감이 스며든 흔적, 덧대어진 이미지는 손의 압력을 통한 직접적 표현과 함께 프레스기 압력을 통한 간접적 표현으로 동시에 대치되어 나타난다. 이 이질적 요소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층적인 감성의 조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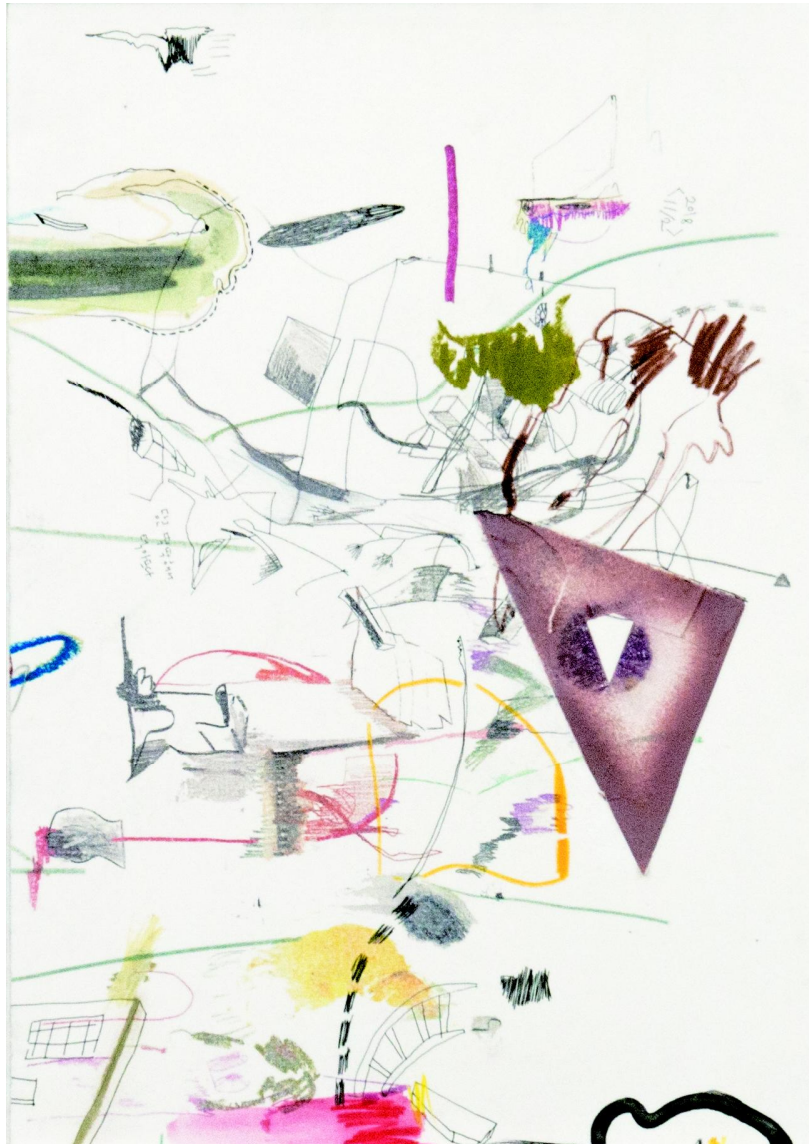
본인은 판화 기법 중 주로 목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나무 위에 드로잉하고 칼자국을 통해 이미지를 판 후, 퍼즐(Puzzle) 조각과 같이 잘라내어 각각 다른 색상을 잉킹하여 찍어낸다. 나뭇결이 가지고 있는 균일하지 않은 틈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자국을 내며 목판 판재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작품9] Youngjoo Kim, Map Drawing#8, 29x42, Wood cut on Digital print, 2019



[작품10] Youngjoo Kim, Map Drawing#12 ,60.6x72.7, Mixed media on paper, 2019



[작품11] Youngjoo Kim, Map Drawing#9, 29x42, Mixed media on Digital print, 2019

[작품9]은 스캔한 드로잉을 재조합하여 디지털 프린트로 출력한 후, 조각낸 목판들을 각각 다른 색상으로 잉킹 하여 퍼즐처럼 조립한 후 프레스에서 찍어낸 작품이다. 디지털 프린트와 목판의 물성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작품10]은 리놀륨 판을 프레스 압력을 통해 찍은 후, 그 위에 스텐실 기법으로 드로잉을 하고, 한지위에 목판으로 찍은 이미지를 오려 풀라주하여 작업을 완성하였다. 볼록판화의 압력과 평판의 편편함이 대비를 이루며 화면 속에 높낮이가 다른 공간의 대비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작품11]는 작은 종이 위에 드로잉 했던 이미지 부분을 컴퓨터로 스캔을 하고, 스캔한 작업을 포토샵으로 크기와 배열을 조정한 뒤에, 판화지에 출력하였다. 판화지 위에 출력된 이미지는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드로잉들이 그려졌지만, 출력을 통해 잉크라는 하나의 속성으로 종이 위에 평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 위에 기존에 판화 작업한 이미지들을 오려 붙이고 콜라주 하여 생경한 표현성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 Ⅲ. 결 론

본 논문은 2018년부터 진행한 작품 등을 모아 전시한 2019년 석사 학위 청구 전 ‘MAP DRAWING’의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관점을 분석한 글이다.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을 시각화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치유의 감정들을 서술하였다.

현대 사회의 기술 발달과 그로 인해 급속도로 고도화된 미디어 정보에 의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실시간에 얻을 수 있기에, 삶에 대한 고민과 생각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본인은 삶의 흔적으로서 스치는 생각마저 지니고 간직하기 위해 기록하고자, 매일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며 글과 그림으로 일기를 쓰는 것처럼 드로잉을 한다. 본인은 이 ‘맵 드로잉’ 작업 과정을 통해 현실의 삶 속에서 야기되는 혼란과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 안정감과 함께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본인은 판단하기 힘든 경험과 혼란스러운 생각을 드로잉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하며 현실의 불안감을 해소 시킨다. 랭크는 ‘창조의 욕구’는 ‘생의 불안’에서 온다고 하였다. 본인 또한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대로 드로잉을 하며 펼쳐놓고, 그 위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교육받고 자랐기에, 올바른 삶과 사후세계에 대한 연관된 가치 있는 삶의 의미에 주목하며 모든 사고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본인의 정체성과 부딪히면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모멘텀(Momentum)으로 작용한다. 즉, 사회적 규범 속에서 형성된 질서와 규칙, 그리고 가족과 주변사람의 바람, 나아가 본인의 정체성에 따른 삶의 방향성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균형점을 맵 드로잉에서 찾는다. 본인 삶의 가치관에 대한 불안한 정서적 심리 상태를 자동 기술적 성격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하여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의 방안으로 여러 성격의 표현성을 결합

한 실험을 통해 이질적 성격의 요소들을 한곳에 모아 새로운 균형 잡힌 조형적 조화를 모색하여 편안함을 느끼는 본인만의 질서를 찾고자 하였으며, 불안정한 감정에 대해 심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내면 생각에 집중하게 되었고, 드로잉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삶에 대한 끝없는 의문과 지향점을 다양한 드로잉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확장하여 '새로운 표현성'을 모색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박이소, 『기억과 기록』, 국립현대미술관(2019)

두산백과, “오토 랭크 [Otto Rank],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6676&cid=62841&categoryId=62841>

머리스트타인, 김창한 옮김, 『융의 영혼의 지도』, 문예출판사(2015)

인그리드 리에델 지음·정여주 옮김,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학지사, (2000)

캐시a.말키오디, 최재영, 김진연 옮김, 『미술치료』, 조형교육(2008)

# ABSTRACT

## A Study on Map Drawing as the Healing of Life

- Focused on my works -

Kim, Young Joo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that analyzes the contents and formative aspects of the works, focusing on 'MAP DRAWING', which was exhibited in September 2019.

We live in a category according to social norms. Although the model of life looks similar, each person pursues a different way of life. I'm constantly wavering in any given social norms holding on to tension-flowing strings of life that I do not know where I go. However, at some point, I put down these strings, floating down, swimming freely and face myself with worries and unsolved problem In order to solve this psychological anxiety, the latent "image of the image" is drawn by automatic technical method. These images float on the screen like an island floating on the water as the map of the mind. The image on the screen goes through the adjustment of strength and weakness and allows us to find the balance between 'healing effect' that varies from the

psychological anxiety to being stable and the inner emotional control.

I describe the images of memory in time and space mixed with the emotions accumulated in the inner side with concrete images by drawing lines, faces and colors that are pure formative elements. This drawing representation is called Map Drawing. Regardless of the specific format, I am looking for a new expression by mixing images of various expressions-drawings, print forms, digital and collage forms on one screen.

Through MAP DRAWING research, this work aims to review my work process, analyze the contents and formative viewpoint inherent in the work, seek new expansion of expressiveness, show the process of drawing and self-reflection.